

도보여행길에 대한 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소나무숲길을 중심으로

김선희*

An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Environmental Attitude and Participation: focused on Keumkang Pine Tree Forest Trail

Sunhee Ki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금강소나무숲길을 사례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를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관광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은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환경적(부정) 영향지각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경제적·문화적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고,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경제적·환경적(긍정) 영향지각 수준이 높았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낙후된 편의시설, 취약한 접근성, 부족한 연계 관광코스, 편중된 경제적 편익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주요어 : 도보여행,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주민참여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environmental attitude and participation in Keumkang Pine Tree Forest Trail. The analysis shows that, first,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positiv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is positive, while economic and environmental(negativ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is assessed negatively. Second, environmental attitude is very friendly, while the tourism development based on facility are unfriendly. Third, residents' participation is positive, while satisfaction in economic benefits is lower ranked. Fourth, the correlation between items, in environmental attitude and economic, cultural perceptions had a higher level if it's friendly. participation is positive, economic and environmental(positive) perception had a higher level. Finall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remain a current operating system. And amenities, accessibility, tourist courses and economic benefits, etc. that is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 walking tour,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environmental attitude, residents' participation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8053)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Instruct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nny-sungshin@hanmail.net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관광여행은 본질적으로 장소와 환경을 소비하는 행위이다. 이는 관광현상이 전 과정에 걸쳐 환경의존도가 높고, 환경의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상당부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제되지 않은 관광수요의 증가와 행동이 특정 지역의 환경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는 관광의 양적 팽창이 극대화된 시기로 관광과 환경,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 관계가 고착화 하면서 “관광이 관광을 파괴한다(Tourism destroys Tourism)”는 우려를 낳았다(Krippendorf, 1987, 12-14). 관광과 환경의 관계에서 드러난 명백하고 심각한 문제들은 대중관광에 대한 자성과 함께 관광과 환경의 균형, 관광객의 태도와 소비형태 변화,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에 주목하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생태관광, 녹색관광, 자연관광 등 다양한 대안관광들은 기존 관광과 달리 계절성에 취약하지 않고, 환경적·사회문화적 몰입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정도가 강하며, 관광활동 및 소비의 윤리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철학과 실천원칙에 조금 더 부합하고 있다(Williams, 1998, 92-96).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삼림과 식생, 연안 및 습지, 철새도래지, 산, 강, 해안, 동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토대로 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김선희, 2002, 17-18), 관광형태도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체험과 교류, 소비를 추구하는 체험여행, 교육여행, 치유여행, 도보여행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걷기’와 ‘관광’을 결합한 도보여행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을 찾는 도보여행객이 한 해 수만 명에 이르며, 도보여행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도 2000년 이후 급증하여 도보여행객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2, 5-6).

도보여행(walking tour)은 점(spot), 면(area)이 아닌 선형(linear)의 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과 자원, 문화유산, 생활양식과 생산물 등을 교감, 체험, 소비함으로써 관광과 건강, 교류를 추구하는 여행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전북발전연구원, 2009, 3-4). 최근 ‘걷기 열풍’ ‘걷기 신드롬’이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도보여행의 확산 추세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걷는 여행길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의 도보여행길 조성에 중앙정부와 산하 연구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도보여행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지역자원의 활용과 발굴, 직접적인 체험과 교류를 통한 관광의 질적 제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편의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관광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Butler, 1990; Wall, 1994; Carter, 1994; 야은숙, 1993; 유기준, 1998 등)와 같이 도보여행길이 하나의 관광상품이나 판매전략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관광 인프라시설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여행객의 증가와 행동이 환경악화, 자원훼손, 주민소외, 문화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도보여행 자체가 친환경적 여행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근거이기도 하다. 학술적으로도 아직 그 역사가 짧고, 주제도 도보여행에 대한 장점과 수요증가, 관광기회와 경제적 편익, 여행 만족도 등의 양적 성장세와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연구 스펙트럼의 확대는 물론 장소와 기회 제공자로서 지역사회의 시선에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도보여행은 걷는 길을 따라 주변의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문화와 주민의 삶과도 깊숙이 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보여행길이 그 본래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걷는 길 조성과 이용,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보여행의 핵심 콘텐츠인 걷는 길 조성 및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식과 삶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울

진군의 금강소나무숲길 조성과 관광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등을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광-환경-주민편익의 선순환적 균형과 도보여행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금강소나무숲길은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과 북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숲을 중심으로 한 산림자원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양서식지, 옛 화전민터와 주막터, 십이령 고갯길과 보부상의 흔적 등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된 생태숲길이다. 연구의 공간범위는 금강소나무숲길의 거점마을인 소광리, 두천리 등을 포함하는 금강송면과 북면, 숲길조성과 운영관리의 주체인 울진군청, 국립림관리소, 숲길안내센터 등이 입지해 있고, 울진군 관광교통의 거점인 울진읍 지역이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현장답사와 자료조사,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인터뷰 등으로 구분되며, 2013년 5월 숲길탐방을 실시하였고, 2014년 9월, 2015년 4월 2차례에 걸쳐 기초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은 첫째, 도보여행의 확산과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기초자료를 토대로 연구지역의 환경과 지리적 특성,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로별 관광자원 분포, 운영 및 관리 체계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금강소나무숲길에 대한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등의 빈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숲길 운영 참여자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한계점과 개발수요를 조사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도보여행에 관한 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관광형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전소비형에서 인간의 감성과 느낌의 철학을 지향하는 시간소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걷기 문화’와 ‘도보여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도보여행은 천천히 걸으면서 지역의 자연생태 및 문화자원을 감상하고 학습하며, 지역주민과 직접 교류하고 생활과 생산 활동을 경험할 뿐 아니라 지역에서의 체재시간이 길고, 같은 공간에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행형태와 차별화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도보여행을 직접적인 교류와 체험, 교육과 학습, 건강과 치유 등을 추구하는 관광목적과 관광객의 이동과 행동적 제약 측면에서 환경과 지역 친화적인 여행으로 규정하고, 그 핵심 콘텐츠는 교란되지 않은 생태자원을 기초로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텔링, 다양한 프로그램의 걷는 길 발굴과 조성이라고 본다.

도보여행의 역사가 깊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에서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 와 도보여행 문화가 확산되어 왔다. walkway, trail, footpath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걷는 길은 다양한 여가·휴양·관광 활동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선형의 공간개념이다. 세계적으로 19세기 유럽에서 조성된 이후 20세기 말부터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종교, 역사 문화, 자연생태, 생활 등 지역의 환경과 자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보여행길이 조성되고 있으며 (Murray and Graham, 1997; Allaire, 1998; Bruwer, 2003 등),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National Trail, 뉴질랜드의 Walkway, 호주의 Walking Track, 독일의 Wandering Route 등이 있다. 이들은 대개 보행도로를 이용한 도시 간 연계성 확장,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한 도보탐방과 경관감상, 지역의 도심관광개발 등을 목적으로 테마별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과 체험 기회 확대, 안내 및 해설의 다국어 지원, 사전예약 및

참여인원 제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 체류형 및 교육형 관광 유도, 수요층의 다각화, 환경과 자원보전 등의 가치를 실현 하고 있다(박숙진, 2002; 강원발전연구원, 2008; 이영주, 2009; 전북발전연구원,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0 등).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도보여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환경과 자원 특성에 따라 숲길, 산길, 해안길, 마을길, 강길 등 다양한 유형의 걷는 여행길이 전국적으로 발굴, 조성되어 그 양적 신장세가 가파르다. 현재 국내의 도보여행길 조성은 국가, 광역,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와 4대강길, 환경부의 국립공원 둘레길과 생태탐방로, 산림청의 숲길, 행정안전부의 우리마을 녹색길, 국토해양부의 해안누리길 등과 함께 지자체별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 성곽길, 백제역사도보길, 동해안 블루로드, 소백산 자락길 등 2014년 말 현재 전국 약 150여 개 코스의 다양한 테마별 도보여행길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신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아직 그 역사가 짧고, 연구주제도 제한적인 편이다. 대개 도보여행의 긍정적 효과와 매력, 수요확산에 대한 연구(박영아·현용호, 2009), 탐방로의 개발과 계획에 대한 연구(신행우·김형욱, 2003; 송지선, 2007; 정휘, 2008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도보여행길 또는 탐방로 조성 방안을 제시한 정책적 연구(환경부,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인천발전연구원, 2003;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등이 있다. 반면 국내의 걷는 길 조성사업 대부분이 관광인프라시설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지는 반면 풍부한 환경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정재희, 2010)와 부처별 탐방로 조성에 따른 전국 단위의 연계성 부족 및 중복투자의 문제점과 국가차원의 종합적 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서 건강·문화·생태회랑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국토연구원, 2008)도 있다.

2) 관광영향지각, 태도, 참여에 관한 논의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관광개발로 초래되는 제 영향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주목할 만한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미친다는 것이 입증된 때문이다(Lankford and Howard, 1994, 121-122). 학문적으로 연구주제가 경제적 영향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 연구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입증하는 연구로 다각화 되고, 방법 면에서도 통계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영향에서 지역주민이 실제로 인지하는 지각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Belisle and Hoy, 1980; Ap, 1992; Pizam and Kavallinis, 1995; Nicholas and Pizam, 1996; 강미희 등, 1998; 고동완, 1998 등)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지각된 관광영향(perceived tourism impact)이 지역주민의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면서 논리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정현영, 2001, 11-16), 관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제영향과 지각된 영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Belisle and Hoy, 1980). 특히 1990년대 이후 관광과 환경의 연결고리를 전제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환경의 질적 보전, 환경과 인간의 유기적인 조화,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주도, 기능적 연합과 공간적 집락, 상대적 낙후지역의 관광활성화 수단 등으로 제시한 연구(손대현, 1990), 부분적으로 관광개발의 환경적 영향을 다룬 연구(김영호, 1991; 김선희, 1997 등)와 함께 제주도·Hawaii·North Wales·Istanbul 등을 중심으로 관광의 환경영향지각을 비교 평가한 연구(이완형, 1989) 등이 있다.

태도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Ajzen, 1991, 179-180) 경험을 통해 학습되고, 특정한 사물이나 상태에 대한 호의적, 비호의적 반응이며, 비교적 지속적이고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관광분야에서 태도는 인간의 행동양식과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서 관광행동과 의도, 관광만족도, 관광영향지각, 주민참여행동 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의 태도 및 척도 분석(Brougham & Butler, 1981; Lankford & Howard, 1994),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태도차이 분석(Liu & Var, 198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 태도 분석(김남조, 2001), 지역주민의 환경적 태도와 참여, 관광영향 지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정현영, 2001) 등이 있다.

주민참여는 시대와 지역, 정책, 요구 등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지역관광 시각에서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로 주민참여의 개념, 참여정도와 단계, 참여 활성화와 방법, 참여행동의도 등이 논의되어 왔는데(Murphy, 1988; 김성준, 1993; Simmons, 1994; 김준길, 1997; 박운정, 1999; 정현영, 2001 등), 관광분야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은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생태관광에서 지속가능한 원칙으로 환경과 자원의 보전, 환경교육, 지역편의와 주민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고, 기존의 시설중심 관광개발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깊게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개발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사와 단계, 행동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개념을 첫째, 관광영향지각은 금강소나무숲길 조성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실제로 인지하는 영향 정도이고, 둘째, 환경태도는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에 기초한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며, 셋째, 참여는 금강소나무숲길 조성과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의사와 참여수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3. 연구지역의 지리적, 관광적 특성

1) 연구지역 개관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총 면적 989,37km², 약 2만 4천 여 세대, 6만 여 명 인구규모의 소도읍이다. 전체 면적의 85.6%가 임야로 서북쪽은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동쪽은 해안을 따라 저평한 평야가 남북으로 좁고 길게 발달해 있다. 주요 조사대상 지역은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진출입 거점인 금강송면과 북면, 그리고 울진군의 행정·관광·교통의 거점인 울진읍 지역이다. 금강송면은 면적이 298,38km²(35.2%)로 군내에서 가장 넓지만 대부분 울창한 삼림의 임야지역으로 인구수가 721명(1.2%)에 불과하고, 북면은 면적이 142.07km²(16.8%)로 금강송면 다음으로 넓고 인구수가 3,705명(5.4%)이며, 울진읍은 면적 81,58km²(9.6%), 인구수 7,027명(12.5%)의 군청 소재지이자 울진군으로 들고나는 교통의 중심 거점으로 각종 행정 및 사회시설이 집중되어 있다(그림 1).

울진소나무 숲은 금강송면 소광리와 불영사계곡 군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약 80km²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황장목, 춘양목, 강송 등으로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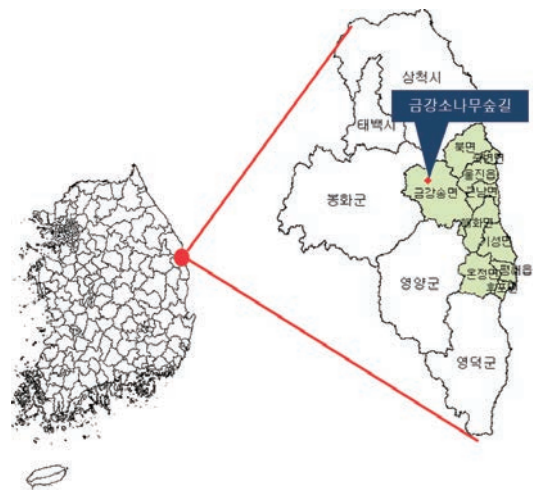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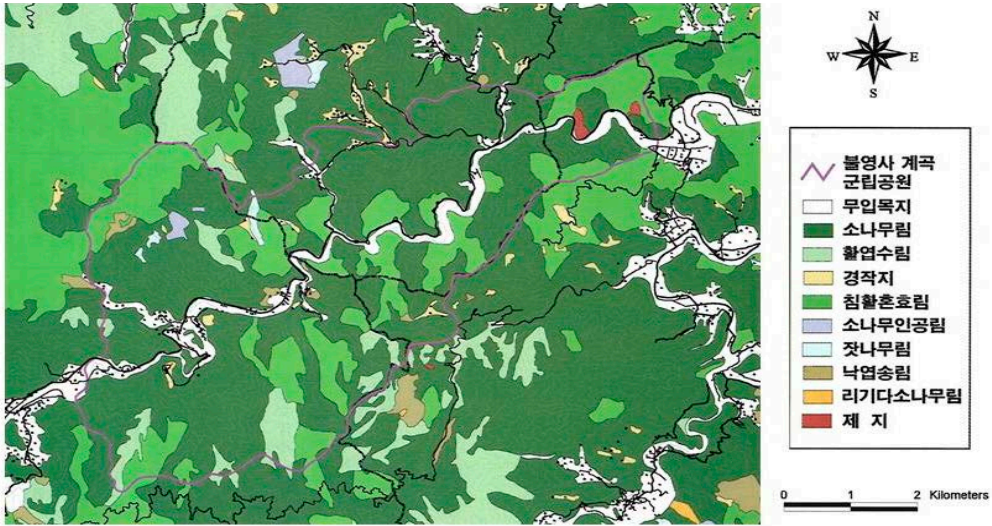


그림 2. 금강송면 일대의 임상도

출처: 홍선천 등, 2001.

는 울진 소나무는 2000년 울진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금강소나무」로 명명되었다. 금강소나무 숲은 1959년 육종림(育種林)으로 지정된 후 1982년 천연보호림, 2001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금강소나무 숲의 임상별 분포를 보면(그림 2), 80km²의 숲 가운데 소나무림의 면적이 46.5km²로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여기에 활엽수림 및 침활혼효림 등을 더한 천연림 구역이 약 87.3%로 생태적, 유전적 가치가 매우 높다(홍선천 등, 2001, 57-69).

금강소나무는 원래 조선후기 산림관리를 위해 세웠던 봉산제도에 따라 속중 때 「황장봉산」으로 지정되었는데 황장목(黃腸木)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국가가 관리했던 소나무 최대 군락지였다. 금강소나무 숲은 일제강점기 수탈대상 자원이었고, 해방 후 민생 목재 공급지였으며, 최근 산림청의 「문화재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될 때까지 그 역사적, 경제적 가치가 변화해 왔다(김의정, 2001, 205-210). 여기에 2000년 강원도 산불피해 후 산림경관의 선호도 조사에서 소나무림 경관에 대한 선호도가 여타 수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금강소나무의 경관적 가치가 확

인되었으며, 불영계곡-금강송군락지-통고산휴양림으로 연결되는 금강소나무 숲은 심신의 건강과 치유, 교육과 학습 등을 위한 생태관광 및 도보여행지로서 휴양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 2000, 311).

2)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로와 탐방수요

금강소나무숲길은 울진군 소광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보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산림청에서 조성한 생태숲길이다. 산림청의 숲길 조성 목적은 산림운영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 제시와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이용한 자연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2008년 금강소나무숲길 조성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약 50km의 생태숲길이 조성되었고, 지금도 옛길과 소로, 임도 등을 이용한 산림자원과 역사자원, 문화자원이 연계된 숲길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보여행길로 개방되고 있는 금강소나무숲길은 울창한 산림자원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양서식지, 황장봉계표석을 비롯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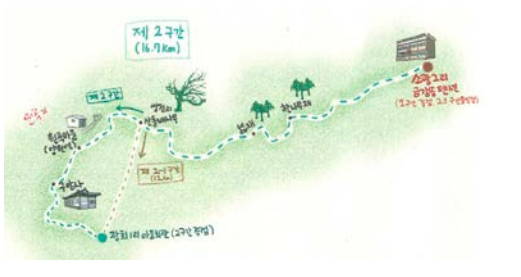

① 구간		구간	두천1리~소광2리, 13.5km, 6~7시간
		경로	두천1리-바릿재-장평-찬물내기-셋재-대광천-저진터재-소광2리
		관광 자원	내성행상불망비·말래주막거리·두천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양서식지·조령성황사·셋재주막터·너삼밭·말무덤·화전민터·황장봉계표석 등
② 구간		구간	2구간: 소광2리~광회1리, 16.7km, 7~8시간 2-1구간: 12.0km, 5~6시간
		경로	소광2리-한나무재-큰넓재-쌍전리돌배나무-양원역-구암사-광회1리
		관광 자원	원취락터·한나무재·큰넓재·달전마을 산수터·박달골·산돌배나무·귀틀집·양원역·구암사 등
③ 구간		구간	소광2리~금강송 군락지 왕복, 16.3km, 7~8시간
		경로	소광2리-저진터재-너삼밭-화전민터-금강송관리 초소-금강송 군락지
		관광 자원	너불한재·너삼밭재·화전민터·금강송 군락지·안도현시비·금강소나무전시관·오백년소나무·뫼난이소나무·미인송·관망대·사방땀 등

그림 3.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정보와 관광자원

출처: 금강소나무숲길 가이드북, 2011을 참조하여 필자 재작성.

다양한 야생동물과 파충류, 나비와 곤충, 야생화 등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생태 교육 및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흥부장, 울진장, 죽변장에서 소금과 해산물을 봉화 춘양장이나 영주, 안동 등 내륙지방으로 내다팔고, 베, 무명, 비단, 담배, 곡물 등을 들여오던 십이령 장삿길이 발달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북면 두천리에서 금강송면 소광리를 거쳐 봉화로 이어지는 십이령길이 복원되면서 화전민과 보부상, 선질꾼들의 삶의 흔적과 스토리텔링으로 환경과 문화, 지역 친화적인 도보여행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로는 총 5개 구간으로 2010년 1구간, 2011년 3구간, 2012년 2구간을 개방하였고, 4, 5구간을 계획 조성 중이며, 현재 개방 중인 3개 구간의 탐방정보와 관광자원은 (그림 3)과 같다. 탐방수요는 2010년 1구간 탐방로를 무료로 개방한 이후부터 2014년 말까지 전체 누적 탐방객이 10만 명을 넘었다. 구간별로는 대개 1, 3구간에 탐방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 십이령길을 따라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된 1구간 숲길이 전체 탐방객의 67%,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화전민의 흔적을 돌아보는 3구간 숲길이 30%, 1구간과 연결하여 편도로만 운영되는 2-1구간 숲길이 3%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은 구

간별 개방 시기의 차이 때문으로 그 변화추이를 보면 산림생태자원이 풍부한 3구간에 대한 탐방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탐방수요와 주민편익의 연결 지표라 할 수 있는 민박수요는 전체 탐방객의 약 18% 수준으로 진출입 거점마을의 가정 민박과 마을공동으로 운영 중인 금강송펜션의 시설개선이 요구되며, 점식식사는 소광2리의 십이령 주막과 두천 1리의 도시락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도시락 주문량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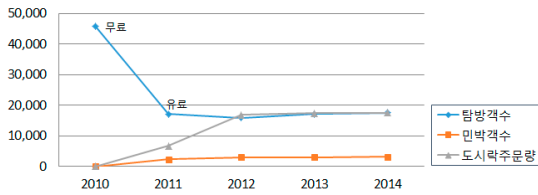


그림 4. 금강소나무숲길의 탐방수요 추이

출처: 숲길안내센터 내부자료, 2014.

3) 금강소나무숲길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금강소나무숲길은 산림자원의 보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과 산촌체험을 연결하는 한편 상업적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연 및 지역 중심의 책임여행과 공정여행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운영 및 관리는 숲길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

는 산림청,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울진군, 위탁 운영 관리하는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숲길운영위원회 등의 국민 다자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운영 및 관리 체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탐방예약 및 인원제한으로 구간별 탐방인원을 1일 80~100명으로 제한하고, 20~30명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숲길 탐방을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을 숲 휴식일로 지정하여 탐방을 금지한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안적 장치로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에 대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숲해설사 동행 탐방 제도이다. 탐방객의 지적욕구 해소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탐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자원훼손을 방지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생태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방과 후 생태수업, 군민과 장애인, 시니어 걷기행사, 청소년 숲 체험, 학교폭력 예방 힐링캠프, 명사와의 대화 및 숲길걷기, 야생화 체험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이 미지를 제고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참여와 경제적 편익 제고이다. 숲해설사, 숲길 안내요원, 시설정비 및 관리, 지역산물의 생산과 판매, 민박과 주막운영, 도시락 제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거점마을인 소광리와 두천리

표 1. 지역주민의 참여 분야와 규모

참여 분야	참여 규모		누계
숲해설	3명(2010), 14명(2011), 12명(2012), 14명(2013), 12명(2014)		58명
숙박서비스	민박	10가구(두천1리), 4가구(소광2리), 10가구(소광1리)	24가구
	펜션	금강송펜션(소광2리; 폐교를 이용한 마을 공동 운영)	8가구
식사서비스	십이령주막(소광2리), 도시락 제작 및 배달(두천1리; 2인 1조 3팀 운영)		7가구
농특산물판매	십이령주막(소광2리), 주막거리(두천1리) 등에서 마을 공동 참여		30가구
운영서비스	안내센터	예약, 홍보, 홈페이지 관리, 가이드북 배포 등	5명
	안전 및 관리	안전요원, 시설 유지관리, 보수, 정비 등	5명
	운영위원	소광 1·2리, 두천 1·2리 각 1명	4명

출처: 숲길안내센터 내부자료(2014)를 참조하여 필자 재작성.

는 총 95가구 중에 숙식 및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숲길 운영과 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는 가구가 약 75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로 연결되고 있다(표 1).

4.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관계 분석

1) 설문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17~19일, 2015년 4월 28~30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주민의 다수가 고령이며, 학력수준이 낮은 소광리와 두천리 등의 산간 거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을 실시하였고, 금강송면과 북면, 울진읍 등지의 주민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와 마을이장의 협조를 구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총 274부 가운데 221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192부이다.

설문문항의 설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선정하였는데¹⁾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외에 3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광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지각 등 4개 항목의 18개 변수, 환경태도는 12개 변수, 주민참여는 10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측정방식은 명목척도와 '매우 그렇다'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적 변수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통해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항목별 크론바흐 계수가 0.7 이상으로 모든 항목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 간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금강소나무숲길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태도 점수 간 평균이 3.9018로 가장 높은 반면 관광의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부정) 영향의 평균이 2,7654와 2,9303으로 낮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인구통계적 특성

유효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여성(59.4%), 40대 이상 연령(76.5%), 농림어업 종사자(50.5%), 대졸 및 고졸 학력(72.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60.5%)의 비율이 높았고, 거주지는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구통계적 항목간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면 거주지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등 전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요 탐방거점인 금강송면 거주자의 경우 여성과 60대 이상의 연령, 중졸 이하의 학력, 200만 원 대 이하의 가구소득,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 군청소재지인 울진읍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간지역의 입지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

표 2.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

측정항목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변수
환경태도		3.9018	0.50884	.812	12
관광 영향 지각	경제적	2.7654	0.78904	.917	4
	문화적	3.2210	0.58129	.770	4
	사회적	3.2400	0.42252	.806	4
	환경적(긍정)	3.1655	0.73097	.836	3
	환경적(부정)	2.9303	0.79086	.865	3
주민참여		3.0743	0.65569	.777	10

표 3.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변수	빈도(%)	항목	변수	빈도(%)
성별	남자	78(40.6)	거주 지역	금강송면	39(20.3)
	여자	114(59.4)		북면	52(27.1)
연령	20대 이하	13(6.8)		울진읍	94(49.0)
	30대	32(16.7)		기타	7(3.6)
	40대	59(30.7)	학력	초등졸 이하	19(9.9)
	50대	52(27.1)		중졸	34(17.7)
	60대 이상	36(18.7)		고졸	68(35.4)
직업	농림수산업	97(50.5)	가구 소득	대졸 이상	71(37.1)
	상공업	47(24.5)		100만원 이하	14(7.3)
	회사원	19(9.9)		100만원 대	23(11.9)
	공무원	10(5.2)		200만원 대	39(20.3)
	주부	12(6.3)		300만원 대	65(33.9)
	기타	7(3.6)		400만원 이상	51(26.6)

3) 측정항목별 빈도 분석

(1) 관광영향지각

금강소나무숲길의 조성과 관광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구분하여 18개 변수로 측정하였다. 4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수준은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높게 평가된 반면 경제적 영향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영향 변수 모두가 평균 3점 이하로 긍정적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기회 확대와 실질소득증가에 비해 소득분배 불균형과 생활수준향상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되었다. 둘째, 문화적, 사회적 영향은 모든 변수에서 긍정적인 지각 수준을 보이는데 문화자원 보전·의식 제고, 문화자원 발굴 증가, 공동체 의식 강화, 사회참여 확대, 교육 및 학습 기회 확대 순으로 높은 지각수준을 보였다. 셋째, 환경적 영향 지각은 긍정적, 부정적 지각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긍정적 영향으로는 생태 및 문화경관 정비, 부정적 영향으로는 환경오염 및 쓰레기 증가에 대한 지각 수준이 가장 높았다(표 4).

(2) 환경태도

금강소나무숲길의 조성과 관광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태도는 평균 3.9018로 관광영향지각과 주민참여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 변수에 따른 빈도를 보면 인간과 환경의 균형, 숲의 중요성과 보전,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등 일반적인 환경의식과 태도가 매우 긍정적,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지역민의 자부심, 지역발전에의 기여, 운영체제 만족도 등에서도 대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편의시설 증설, 관광객 유치 확대, 환경훼손 감소 등 관광개방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관광지로서의 시설개발보다 환경과 생태자원의 보전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3) 주민참여

금강소나무숲길의 조성과 관광개방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정도와 의사 등을 평가하기 위한 빈도 분석에서 각 점수 간 평균이 3.074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수의 내용에 따른 빈도를 보면 민관협의 및 참여기회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주민참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 의사와 방법에 대해서는 숲해설가,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운

표 4. 관광영향지각 분석 결과

항목	변수	빈도율(%)					평균	표준편차
		5점	4점	3점	2점	1점		
경제적	가계 소득 증가	5.0	17.9	50.5*	22.9	4.3	2.96	.885
	일자리 및 고용기회 확대	3.5	18.4	46.8*	26.2	5.0	2.89	.884
	생활수준, 삶의 질 향상	3.5	11.3	36.2	42.6*	6.4	2.56	.825
	관광소득의 고른 분배	2.1	7.9	40.7	42.1*	7.1	2.63	.898
문화적	문화자원 보전 의식 제고	12.8	36.2	39.0*	9.9	2.1	3.48	.915
	향토 문화자원 발굴 증가	7.1	27.0	52.5*	9.9	3.5	3.24	.861
	공동체 의식 강화	4.3	23.4	49.6*	19.1	3.5	3.06	.860
	전통 생활양식 쇠퇴	4.3	17.1	45.7*	29.3	3.6	2.89	.879
사회적	교육 및 학습 기회 확대	4.3	22.0	48.9*	21.3	3.5	3.02	.866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	7.8	21.3	44.0*	23.4	3.5	3.06	.950
	관광객과의 괴리감	2.8	8.5	48.9*	35.5	4.3	2.70	.800
	일상생활의 방해 및 불편	3.6	3.6	35.0	47.1*	10.7	2.42	.866
환경적	도로정비 및 교통편리	7.1	21.3	46.1*	22.7	2.8	3.07	.915
	공공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4.3	17.7	50.4*	26.2	1.4	2.97	.819
	생태 및 문화경관 정비	6.4	44.0*	39.0	9.9	0.7	3.45	.788
	환경오염 및 쓰레기 증가	5.7	25.5	48.2*	18.4	2.1	3.14	.858
	자연 및 생태 자원 훼손	6.4	21.3	47.5*	22.7	2.1	3.07	.884
	자연경관 파괴	7.9	16.4	45.7*	27.1	2.9	2.99	.933

* 최빈율

표 5. 환경태도 분석 결과

변수	빈도율(%)					평균	표준편차
	5점	4점	3점	2점	1점		
인간과 환경은 공존해야 한다.	68.8*	27.0	2.8	0.7	0.7	4.62	.650
숲은 보전해야 할 인류공동의 유산이다.	75.0*	22.1	2.9	0.0	0.0	4.72	.510
도보여행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다.	44.7*	42.6	12.8	0.0	0.0	4.32	.690
숲 보전을 위해 생활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35.5	39.0*	22.0	3.5	0.0	4.06	.847
숲길 조성으로 환경의식과 관심이 높아졌다.	28.4	34.0	36.2*	1.4	0.0	3.89	.834
숲길 조성을 알고 있고, 자부심을 느낀다.	42.6*	30.5	24.8	2.1	0.0	4.13	.864
숲길 조성시 지역발전과 홍보에 도움 된다.	33.3	43.3*	22.0	1.4	0.0	4.09	.779
숲길 운영은 현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1.2	44.7*	18.4	5.0	0.7	4.01	.874
숲길 운영 및 관리 평가는 긍정적이다.	23.6	43.6*	28.6	4.3	0.0	3.86	.824
소득증대를 위해 환경훼손은 감수해야 한다.	8.6	19.4	23.7	36.7*	11.5	2.77	1.150
관광발전을 위해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	14.9	31.2*	29.1	17.7	7.1	3.29	1.137
탐방객 제한해지로 관광객을 늘려야 한다.	9.9	29.8*	22.7	27.7	9.9	3.02	1.174

* 최빈율

표 6. 주민참여 분석 결과

변수	빈도율(%)					평균	표준편차
	5점	4점	3점	2점	1점		
숲길 운영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다.	4.3	23.2	50.7*	19.6	2.2	3.08	.829
숲길로 생긴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한다.	2.9	7.9	50.0*	32.1	7.1	2.89	.696
숲길 운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7.1	51.8*	35.5	3.5	2.1	3.58	.767
민관 협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15.6	44.0*	32.6	6.4	1.4	3.66	.869
숲길 조성과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5.7	17.7	48.2*	22.7	5.7	2.95	.928
숲해설가 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8.5	19.1	44.0*	24.1	4.3	3.04	.974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5.0	17.7	45.4*	26.2	5.7	2.90	.928
관광편의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4.3	10.6	34.8	41.8*	8.5	2.60	.940
시설관리 및 보수에 참여하고 싶다.	4.3	8.5	45.4*	35.5	6.4	2.69	.879
안내 및 홍보 등에 참여하고 싶다.	4.3	13.5	44.0*	31.9	6.4	2.77	.913

* 최빈율

영, 숲길 안내 및 홍보, 시설관리 및 보수, 관광편의시설 운영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주민의사 반영 정도는 다소 긍정적인 반면 일자리 및 소득 등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여 관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각수준이 낮게 평가된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4) 측정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

금강소나무숲길 조성 및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가설로 첫째, 관광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환경태도가 우호적이며, 둘째,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주민참여가 높고, 셋째, 관광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주민참여가 높다고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환경태도와 환경적(부정) 영향지각, 문화적 영향과 환경적(부정) 영향 지각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이 유의수준 $p < 0.05$, $p < 0.01$ 하에서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환경태도는 환경적 영향(부정)과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수준 0.01 하에서 상관성을 보이며,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사회적 영향지각과 주민참여 순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둘째, 관광영향지각은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을 제외한 항목과 0.01 하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경제적 영향은 문화적 영향과 주민참여와의 상관성이 높았고, 문화적 영향은 환경적(부정) 영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과 다소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사회적 영향은 모든 항목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환경적(긍정) 영향은 모든 항목과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문화적, 경제적 영향, 주민참여와 다소 높은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환경적(부정) 영향은 환경태도, 문화적 영향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 주민참여와 매우 약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셋째, 주민참여는 경제적, 환경적(긍정), 문화적 영향지각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표 7).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환경태도는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태도가 우호적일수록 주민참여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관광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주민참여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관광영향지각 항목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경제적, 환경적(긍정), 문화적 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주민참여가 높았지만 사회적, 환경적(부정) 영향지각과는 상관성이 낮았다.

표 7. 측정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측정항목		환경태도	관광영향지각					주민참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긍정)	환경적(부정)	
환경태도		1	0.494**	0.460**	0.335**	0.336**	0.035	0.295**
관광영향지각	경제적	0.494**	1	0.564**	0.401**	0.465**	-0.166*	0.526**
	문화적	0.460**	0.564**	1	0.524**	0.477**	0.068	0.414**
	사회적	0.335**	0.401**	0.524**	1	0.217**	0.260**	0.198*
	환경적(긍정)	0.336**	0.465**	0.477**	0.217**	1	-0.318**	0.423**
	환경적(부정)	0.035	-0.166*	0.068	0.260**	-0.318**	1	-0.184*
주민참여		0.295**	0.526**	.414**	0.198*	0.423**	-0.184*	1

* $p < 0.05$, ** $p < 0.01$

5) 운영 참여자 인터뷰 결과

금강소나무숲길 운영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숲길 조성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우호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과도한 시설중심의 관광개발과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한계점과 개발수요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숲길안내센터 직원과 숲해설사의 경우 탐방예약 및 인원제한, 편의시설 제한 등 현재의 운영원칙유지를 중요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거점마을 운영위원장들은 고령의 저학력 인구가 많아 다양하고 전문적인 숲길운영참여의 한계를 지적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경제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증설 및 개보수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셋째, 실무담당 공무원은 진출입 거점마을 간 주민참여 및 경제편익, 시설투자 등의 불균형에 대한 주민갈등해소를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하였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금강소나무숲길 조성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등을

분석하여 관광-환경-주민편익의 선 순환적 균형을 토대로 도보여행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금강소나무숲길은 금강송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중심으로 산림자원 보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조성한 생태숲길로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3개의 탐방로가 개방되어 있고, 탐방 예약제 및 인원제한, 숲해설사 동행, 상업적 관광시설 규제, 생태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운영 등을 통해 환경과 지역 친화적인 도보여행길을 추구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여성, 40대 이상의 연령, 농림어업 종사자, 고졸 이상의 학력, 3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울진읍, 북면, 금강송면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주요 거점지역인 금강송면의 경우 여성과 60대 이상의 연령층, 중졸 이하의 학력, 200만 원 대 이하의 가구소득, 농림수산업 등의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아 산간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환경태도, 참여 등의 분석 결과는 첫째, 측정항목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이 모두 0.7이상으로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관광영향지각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이 긍정적인 반면 경제적, 환경적(부정) 영향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환경태도는 매우 우호적인 반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넷째, 주민참여는 참여기

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참여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고, 참여의사는 숲해설가, 생태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시설관리 및 보수, 관광편의시설 운영 순으로 높았다. 다섯째, 항목 간 상관관계는 환경태도와 환경적(부정) 영향지각, 문화적 영향지각과 환경적(부정) 영향지각 간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 간에 유의수준 $p < 0.05$, $p < 0.01$ 하에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 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환경태도가 우호적이었고, 경제적, 환경적(긍정) 영향지각이 긍정적일수록 주민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금강소나무숲길 운영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숲길 조성과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긍정적, 우호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한계점과 개발수요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숲길안내센터 직원과 숲해설사는 현재의 운영체제 유지를 중요한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반면 거점마을 운영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전문분야참여의 한계와 실질적인 경제편익 확대를 위한 시설지원 요구가 높았고, 실무담당 공무원은 거점마을 간 불균형 개발과 지원에 대한 갈등해소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금강소나무숲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첫째, 지역주민의 탐방 참여율을 제고하여 지역의 환경과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탐방예약 및 인원제한, 숲해설가 동행, 탐방로별 휴식년제 도입 등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잠재자원 발굴을 토대로 자연 및 문화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탐방구간별 차별화가 요구된다. 넷째, 편의시설의 개보수, 교통접근성 개선, 지역 내 연계관광코스 발굴 등으로 탐방객의 지역 내 체류기간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거점마을의 민박, 농산물, 도시락 인증허가제,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산과 판매 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거점마을주민의 지속적인 소득보장과 경제적 편익의 지역 내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거점마을별 경관 및 주민참여 실태 변화 등을 추적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사

설문 및 기초자료 조사, 인터뷰 등에 도움을 주신 금강송면, 북면, 울진읍 지역주민과 울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마을이장, 숲해설가, 안내센터 직원, 숲길운영위원장, 산림청과 울진군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줄고에 대한 깊이 있는 해독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지적해 주신 심사자들도 감사드립니다.

주

- 1)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금강소나무숲길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로 재구성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영향지각은 김영호, 1991; 김선희, 1997, 1998; 이완형, 1989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토대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지각으로 구분하여 하위 변수를 선정하였고, 환경태도와 주민참여는 Lankford & Howard, 1994; 정현영, 2001, 차승훈, 2003 등에서 제시된 변수와 필자가 제시한 금강소나무숲길에 대한 변수를 혼용하여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국토 녹색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 강미희·김성일·김동렬, 1998,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한국임학회 하계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자료집, 620-630.
- 강원발전연구원, 2008, 독일의 관광가도 운영사례와 시사점.
-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남의 해안도보여행길 조성방안.

- 고동완, 1998,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조, 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태도,” 관광학회 제50차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59-68.
- 김봉환, 1999,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97, “관광영향 분석을 위한 지리적 연구,” 지리학연구, 30, 33-46.
- 김선희, 1998,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인지도 분석,” 지리학연구, 32(1), 87-100.
- 김선희, 2002, “생태관광의 이론적 특성과 연구동향,” 응용지리, 23, 17-42.
- 김성준, 1993, 관광단지 개발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효율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 1991, 관광지화가 주변 농촌지역과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 장흥, 대성리, 용평 관광지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2001, “금강소나무 가치의 재조명,” 제2회 울진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임정연구회, 205-236.
- 김준길, 1997, 자치시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해안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 2000, 동해안 산불지역 정밀조사 보고서 II.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 박숙진, 2002, “독일의 문화관광테마가도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6(2), 59-78.
- 박영아·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7), 75-93.
- 박운정, 1999,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연구.
- 손대현, 1990, “관광개발·환경·마케팅의 연결고리,”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2, 30-31.
- 송지선, 2007, 청계천 상류지천 유역의 역사탐방로 계획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행우·김형욱, 2003, “서울 북촌의 역사탐방로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47-550.
- 야은숙, 1993,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생태 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준, 1998, “국내 생태관광의 현황과 바람직한 접근방향,” 환경과 조경, 125(9), 132-137.
- 이성용, 2010,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올레 보전 및 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이영주, 2009, 국내외 트레일 개발사례와 시사점, 강원발전연구원.
- 이완형, 1989, “관광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 인지,” 관광학연구, 13, 137-156.
- 인천발전연구원, 2003, 구도심 도보관광 진흥방안.
- 전북발전연구원, 2009,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
- 정재희, 2010, 느낌의 가치, 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경남발전연구원.
- 정현영, 2001, 생태관광의 영향지각과 주민참여간의 관계: 우포늪 생태계보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휘, 2008,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승훈, 2003,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설정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동굴관광지를 사례로 하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관광공사, 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홍선천·오승환·이중효·이영진·한상렬·윤충권·김진석·우병운, 2001, “불영사 계곡 일대의 소나무 숲 현황 및 보전 전략,” 제2회 울진 소나무림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임정연구회, 57-155.
- 환경부, 2007,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al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llaire, G., 1998, Medieval Italian pilgrims to Santiago de Compostela: new literary evidence, *Journal of Medieval History*, 24(2), 177-189.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 on Tourism Impa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Belisle, F. J. and Hoy, D. R., 1980, The Perceived Impact of Tourism by Residents: A Case Study in Santa Marta, *Annals of Tourism Research*, 7(1), 83-101.

Brougham, J. E. and Butler, R. W., 1981,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8, 569-590.

Bruwer, J., 2003, South African wine routes; some perspectives on the wine tourism industry's structural dimensions and wine tourism product, *Tourism Management*, 24, 423-435.

Butler, R., 1990, Alternative Tourism: Pious Hope or Trojan Hor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42.

Boo, E., 1990, *Ecotourism: The Potentials and Pitfalls*, 1, World Wildlife Fund, Washington D.C..

Carter, E., 1994, Introduction, in Carter, E. and Lowman, G.(eds), *Ecotourism: A Sustainable Option?*,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Ceballos-Lascurain, H., 1983, The Future of Eco-tourism, *Mexico Journal*, 51, 13-14.

Krippendorf, J., 1987, *Holiday Makers*,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Oxford.

Lankford, S. V. and Howard, D. R., 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121-139.

Liu, J. C. and Var, T., 1986,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Impacts Hawaii,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 193-214.

Murphy, P. E., 1988, Community drive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9(2), 99-100.

Murray, M. and Graham, B., 1997, Exploring the dialectics of route-based tourism: the Camino de Santiago, *Tourism Management*, 18(8), 513-524.

Nicholas, H. and Pizam, A., 1996, Perceived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Samo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503-526.

Pizam, A. and Kavallinis, I., 1995,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ourism Whose responsibility is it anyway? The case study of Mykono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 26-32.

Shaw, G. and Williams, A. M., 2002,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2nd ed), Blackwell, Oxford.

Simmons, D. G., 199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5, 101-107.

Wall, G., 1994, Ecotourism: Old wine in new bottles?, *Trends*, 31(2), 4-9.

Williams, S., 1998, *Tourism Geography*, Routledge, London.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 <http://www.uljintrail.or.kr>
울진군청, <http://www.uljin.go.kr>

교신: 김선희, 136-7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sunny-sungshin@hanmail.net)

Correspondence: Sunhee Kim,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34Da-gil, 2, Bomun-ro, Sungbuk-gu, Seoul 136-742, Korea (e-mail: sunny-sungshin@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5. 6. 10
수정일 2015. 6. 23
최종접수일 2015. 6. 29